

여수박람회 국제심포지엄 폐막

“바다·사람 융합...미래 새 도시모델 개발”

“2012 여수세계박람회 제1회 국제심포지엄” 마지막날인 23일에는 여수선언과 여수프로젝트, 여수박람회 기본계획과 구상 등 개최지인 여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현안들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뤄졌다.

정서용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는 ‘여수선언’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박람회에서 ‘선언(declaration)’을 채택하는 것은 여수가 최초”라며 “여수선언은 국제사회에 대한 공약이며, 여수박람회의 주제를 강화하고 또 박람회의 성공개최를 부각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또 여수선언 채택은 2012년 박람회 개막과 함께 하게 되며 선언 채택 성공을 위해 주최국인 한국정부의 확실한 준비와 BIE의 조정자 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수박람회 기본계획을 만들어낸 김도년 성균관대 교수는 “2012여수박람회는 새로운 도시모델과 함께 새로운 가치를 산업에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박람회 기본계획은 여수를 녹색 성장의 거점이자 신해양경제(Blue Economy)의 중심, 그리고 경제·해양·환경이 융합된 도시를 일컫는 ‘블루 에코폴리스(Blue Ecopolis)’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세부목표에 대해서는 “여수를 새로운 해양도시의 거점, 국제적 관광 허브(Hub), 새로운 해양 레저활동의 거점으로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를 위해 바다와 연안, 사람과 자연, 기술과 자연을 융합시킴으로써 미래의 새로운 도시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로프 MIT공대 교수는 이같은 기본구상에 대해 “한국은 세계수준의 토목·건축기술과 조선산업, 태평양에 위치한 지리적 장점을 갖추고 있으며, 녹색성장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은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면 신해양경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수이치 전 2005 일본 아이치박람회 감독은 “성공적인 박람회를 위해선 문제해결을 위한 장으로서의 박람회, 복합미디어로서의 박람회,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성을 지닌 박



23일 여수 디오선리조트에서 열린 2012 여수세계박람회 국제심포지엄 오찬 행사에서 이삼면 전남도 정무부지사, 로세르탈레스 BIE 사무총장, 정승우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장(사진 왼쪽부터)이 건배를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국제사회 공약 ‘2012 여수선언’ 채택해야

환경문제 해결 등 ‘여수프로젝트 재단’ 설립을

람회라는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라우카 사라고사박람회 참가유치 담당관은 “사라고사박람회는 건축물, 수변공원, 고속철도 등의 인프라를 조성해 도시를 가장 크게 변화시켰으며 지속발전의 가능성을 남겼다”며 박람회 시설 사후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윤호 한국해양환경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여수프로젝트와 관련된 주제발표를 통해 “여수프로젝트는 한국 정부가 박람회 유치 과정에서 공약한 것으로, 개발도상국을 위한 원조프로그램”이라고 설명하고 “한국정부는 개도국이 직면한 해양환경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100억원의 자금 투입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이어 “여수프로젝트는 개도국 인력양성, 해양환경문제에 대한 개별적인 해결책 마련, 해양기술역량 강화 등 다양

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박람회 이후에도 이 같은 지원활동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여수프로젝트 재단’이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오는 2012년까지 설립될 이 재단에는 국내외의 경우 정부관련 부처와 연구기관, 대학 등이 참여하고, 해외에서는 해양관련 국제기구 등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로세르탈레스 BIE사무총장은 총평을 통해 “박람회를 개최하는데는 리스크(위험)가 따르지만, 그 리스크를 잘 관리하기만 하면 신속하게 변화를 이끌어내고 또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여수와 한국이 해양과 환경분야에서 전세계의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박람회 민자 유치 설명회

전남도·여수시 오늘 서울

전남도와 여수시가 2012 여수세계박람회 대규모 민자유치에 나선다.

전남도는 24일 서울 중구 왕십리 도로교통공단에서 여수세계박람회장 민자시설 건설과 관련 민자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를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주관으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민자 유치 대상은 박람회 부대 시설 중 아쿠아리움과 해상공연장, 콘도, 유원 시설 등 약 2천억원 규모이며, 국제관 등 당초 조직위 사업도 사후 활용성 등을 감안한 민간 제안이 있을 경우 민자로 추진할 계획이다.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 송명달 민자사업팀장은 “여수는 남해안 선 벨트(Sunbelt)의 핵심으로 한려·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등 국립해상공원이 있으며, 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해 철도, 도로, 항만 등 SOC가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다”며 “민자시설에 대한 투자 잠재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번 민간 투자 설명회를 계기로 잠재적 투자 기업들이 실제 투자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亞문화도시 조성위장 선임 지연

8개월째 공석인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장의 위촉이 당초 예정됐던 24일을 넘기는 등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광주·전남 공동대표를 지낸 강신석 목사를 조성위장으로 내정했으나, 본인의 고사로 제3의 인물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등 당초 24일로 예정됐던 선임 발표가 늦춰질 전망이다.

강 목사는 23일 본보와 전화통화에서 “광주 문화중심도시 조성

가 좋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모두 개인사정 등으로 위원장직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청와대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 접촉한 인사들은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박범훈 중앙대 총장, 한완상 전 통일부총리, 어윤대 전 고려대 총장 등 줄잡아 10여명에 달한다.

청와대는 이들이 전국적인 지명도를 갖고 있는 인사들로 문화중심도시를 대표하고 정부와 어느 정도 교감을 이룰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삼고초려’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신석 목사 고사로 제3 인물 찾기 고심

내대통령 출국따라 빨라야 다음주 위촉

사업을 통해 지역에 봉사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하기도 했지만, 현 상황에서 조성위원장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고사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에서 조성위원장 위촉권을 갖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7차 ASEM(아셈)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3일 출국, 빨라야 다음주 중 조성위원장이 위촉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전임 조성위원장의 잔여 임기가 23일 종료되는 때에 맞춰 24일 신임 조성위원장을 위촉하려고 그동안 강 목사를 비롯해 각계 인사들을 접촉해왔다. 이미 8개월째 공석중인 상황에서 전임위원장의 잔여임기 동안 신임 위원장이 활동하는 것이 모양새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추진단 관계자는 “문화

수도 조성사업을 컨트롤 하는 조성위원장의 책임이 막중한 데다 사업 추진에 따른 논란도 만만치 않은 점 때문에 적임자들이 연거푸 고사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신임 조성위원장과 함께 활동할 제3기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 16명을 최근 문공부에 추천했다. 추천자들은 광주문화예술계 단체장을 지낸 인사들과 학계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정부 각 부처 장관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 15명과 민간위원 14명 등 모두 29명으로 구성되는 조성위원회에 광주지역 인사 7~8명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영기자 zenfoot@

광주시의회 총부세 개편 반대 결의안 채택

광주시의회는 23일 제17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정부와 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 개악을 중단하라”며 총부세 개편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전국 가구의 2%만 내는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주면서 대부분 세대가 내는 재산세를 올리겠다는 발상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를 고사시켰다는 음모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다. 시의회는 이어 “대체 재원대책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면 지방으로 교부했던 세수가 3분의 2가량 감소해 세수 부족에 허덕이는 지자체에 큰 타격을 준다”며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광주시는 연 458억원의 세입이 감소해 5개 자치구는 예산 편성조차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3 Jo-i' (3조이) featuring various property listings with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a large image of a house and a table of property details.